



catholic

# 청년 주보

제877호

2015년 8월 30일(나해)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 762-5071,2  
**이메일** mail@2030.or.kr  
**홈페이지** www.2030.or.kr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가톨릭청년회관(CYC)

## 연중 제22주일

**입당송**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제1독서** 신명 4,1-2.6-8

**화답송** 시편 15(14),2-3ㄱ,3나ㄴ-4ㄱ나,5(◎ 1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야고 1,17-18,21나-22,27

**복음환호송** 야고 1,18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복음** 마르 7,1-8,14-15,21-23

**영성체송**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시교동 성당 W.I.T.H(위드)

**사진 설명** "We are In The Holy Love" 시교동 성당 청년봉사단체 W.I.T.H(위드)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종교의 참뜻인 사랑과 봉사, 그리고 하느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면에 계속>



## 먼저 우리 자신의 정화를...

김상욱 가브리엘 신부님  
제1 중구-용산 지구 청년 지도

요즘 인터넷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을 풍자하여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지옥불반도'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보통 청년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서 '탈'조선하라고, 아니 '죽창'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섬뜩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좀 더 '노오오력'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런 자조적인 유행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도 비슷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정해 놓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느님께 가까이 있다고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차별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율법이 지위와 계층 사이에 놓인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이가 아닌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되었고, 어쩌면 이들은 바리사이들의 율법체계 속에서는 이미 '헬' 이스라엘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헬조선과 헬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죽창'을 드는 것일까요? 이 지옥같은 (율)법 시스템의 억압에 맞서 싸워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을 다시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체계를 형성해온 분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옹아매며 좌절하게 만드는 장벽을 처음부터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외적인 법과 규정에 집중하던 사이에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의 법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분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 각자의 내면의 회개가 우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느님의 계명을 잇고, 형식과 전통 속에 안주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떨며, 분리 장벽을 쌓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그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마르 7,15

## “우리는 거룩한 사랑 안에 있다”

서교동 성당 청년봉사단체 W.I.T.H(위드)를 만나고 와서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히브 13,16)  
 식지 않는 열정과 사랑이 꽃피는 홍대거리, 특히 알록달록 만개한 아름다운 청춘들이 있는 서교동 본당의 봉사단체 W.I.T.H(We are In The Holy Love)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흩어 뿌려져 그리스도 인임을 잊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소개합니다.

6년 전, 노숙자들을 위해 밥을 지어드리는 단순한 새벽봉사로 시작되었으나 참여하는 청년의 인원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30여 명의 단원들을 갖춘 현재의 W.I.T.H라는 봉사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W.I.T.H는 아동복지시설인 양천구 ‘나눔의 집’과 은평구 ‘꿈나무 마을’에서 학습 지도봉사를 하고 있고, 정신요양시설인 은평구 ‘은혜로운 집’에서는 생활인(정신지체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식당청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기는 쉽지 않아 봉사단체 W.I.T.H에서 나눔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조 테레사 헤드비지스 단장)

좋은 몫으로 쓰여 지고 있는 W.I.T.H의 단원들은 봉사하는 시간 외에도 친교의 시간을 가져 왔기에 친목과 화합으로 푹푹 뭉쳐있고 손발이 잘 맞아 항상 서로를 사랑의 에너지로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벽봉사 때 어떤 분께서 식사를 마치고 오셔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는데, 모으기 힘들었을 법해 보이는 꼬깃꼬깃한 돈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고된 봉사이지만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그분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힘든 삶이지만 이 밥심으로 다시 재기하게 될 날이 그분들에게도 오겠지요.” 보람 된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김현우 프란치스코 형제가 느낀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그 느낌을 삶에 반영하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하는 봉사모습이 한여름의 햇살만큼 눈부십니다.

“민들레 흘씨는 후~하고 불면 사망으로 흩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 안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퍼트리다보면 세상 가득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진지함이 묻어나는 환한 미소가 인상 깊었던 프란치스코 형제의 마지막 한마디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따뜻한 메아리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W.I.T.H(위드) 봉사에 관한 문의 : 단장 김민조 테레사 헤드비지스 (tempt20@naver.com)

##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서

8월 21일. 모니카의 일기

이민희 모니카 | 편집부



서울대교구 봉사청년들을 위해 6회째 진행되어 온 산티아고 성지순례.  
올해는 청소년국 청년부 주최로 총 23명이 참가했습니다.

‘카미노(Camino)’는 스페인어로 큰 길을 뜻하며,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곳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북서쪽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라는 도시를 목적지로 순례하는 길 또는 그 순례 자체를 말한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순례의 목적지가 된 것은 그 도시 이름과 같은 야고보 성인(스페인어로 Sant Iago)이 묻혀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커다란 크루아상 하나와 따뜻한 코코아 한잔으로 배를 채우고 드디어 우리는 발을 맞춰 걷기 시작했다.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향해 걷는 이 길을, 나는 왜 걷고자 온 걸까. 서서히 밝아지는 카미노(Camino)는 자꾸 내게 물음을 던졌다.

내 고향 어느 시골 길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들을 볼 때면 고향이 그리워졌고, 해바라기가 끝도 없이 피어난 들판을 볼 때면 어릴 적 즐겨보던 오즈의 마법사 속 양철 나무꾼이 떠올랐다. 길을 걸으며 내 안의 많은 것들을 비우고 가벼워지고 싶었다. 111km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의 거리처럼... 스페인의 샌드위치인 보카디요를 먹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태양은 더 뜨겁게 내리쬐고 배낭은 더더욱 어깨를 저리게 만들었다. 가볍게 걷고 싶어서 수없이 다시 싸고 풀기를 반복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아직도 던져낼 것들이 있었다.

자기의 욕심이 자신을 옥죄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에 가서 버리지 못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오늘의 목적지인 포르토마린(Portomarín)이 보였다. 강을 건너며 잠시 앉아 쉬고 싶었지만 길은 좁았고 내 뒤에 붙어 걸어오는 사람들로 설 수가 없었다.

내 삶도 어쩌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떠밀리듯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산티아고 순례를 선택하며 포기했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내가 기꺼이 오늘을 위해 희생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와서 이렇게 걸으며 드는 생각들은 내가 그 어느 때도 보지 못한 ‘진정한 나’를 돌아보는 기회였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이 뜻 깊고도 아름다운 시간을 소중히 쓰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p.s.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 카미노를 걸은 후의 미사, 힘든 시간 : 카미노를 걸은 후, 초스피드 샤워와 세탁시간